

198. 클리닝 의류 사고사례

(65) 경시열화로 일그러진 프린트 무늬

□ 경시열화로 일그러진 프린트 무늬

해설)

- 옷을 석유계 용제로 통째로 세탁한 경우 무늬가 벗겨 떨어져 무늬부분이 끈적거리는 현상이 발생되었음.
- 이 제품은 날염기법에 따르는 것으로 천 위에 안료나 금속가루를 접착제에 반죽해 날염하는 기법임. 최근 제조되고 있는 것에는 폴리우레탄 수지가 접착제로서 사용되고 있어 경시변화로 인한 열화사고가 다발하고 있음.



- 폴리우레탄 수지의 분해는 공기중의 습기에 의한 가수분해나 자외선 등이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은 벌써 각종 시험 데이터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으며, 일반적으로 약 3년이 수명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임.
- 가수분해가 진행되면 접착능력이 떨어져 안료가 벗겨지거나 점성을 띠어 녹기 쉬워지게 됨. 또, 드라이클리닝 용제에 친화성이 있기 때문에 드라이클리닝에 의해서 열화되어 있던 폴리우레탄 수지가 단번에 박리되어 용제를 흡수해 달라붙는 현상이 발생하게 됨. 폴리우레탄 수지제를 접착제로 사용한 날염제품은 내구

성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음.

♠ 자료출처 : 송종욱 역, 세탁에서 나타나는 문제의류 사고사례 도감, 한국세탁업중앙회, 2011

www.textilecare.kr